

“스펙·모평 토대 ‘2·3·1’ 분산지원 필요”

〈안정〉 〈소신〉 〈상향〉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지원 전략은

9일 조선대, 10일 전남대 등 15일까지 원서접수

총 6차례 지원 가능...전형일정 중복여부 체크 필수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됐다. 9일부터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학생·학부모 모두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올해 총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24만 976명. 전체 모집인원의 67.4%에 달하고 작년보다 수시 모집 비율이 2.2% 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6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예이다.

◇주요 대학들 수시모집 요강은=수시 전형은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전형·특기자전형·적성전형 등으로 나뉜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과 달리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은 자기소개서 등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중을 두고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할 게 많다.〈표〉

수시모집은 전형 유형별로 모집인원의 85.2%를 학생부 위주(학생부 교과 57.3%, 학생부 종합 27.9%)로 선발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학생부종합전형이 48.4%로 가장 모집 인원이 많다.

주요 대학 원서접수 일정

대학교	원서접수기간	자기소개서 제출마감일	추천서 제출 마감일
서울대	9월9~11일(18시)	9월12일(18시)	9월12일(18시)
연세대	9월9~11일(17시)	9월11일(22시)	9월14일(17시)
고려대	9월9~12일(18시)	9월14일(18시)	9월16일(18시)
서강대	9월9~12일(18시)	9월14일(21시)	9월14일(21시)
		11월17일(21시)	11월17일(21시)
성균관대	9월9~12일(18시)	9월14일(24시)	9월16일(17시)
한양대	9월9~12일(18시)	9월14일(18시)	
중앙대	9월9~12일(18시)	9월16일(18시)	9월16일(18시)
경희대	9월9~12일(17시)	9월16일(17시)	9월16일(17시)
이화여자대	9월9~12일(19시)	9월14일(17시)	9월16일(17시)
한국외국어대	9월9~12일(18시)	9월14일(11시)	
서울시립대	9월9~12일(17시)	9월15일(17시)	9월15일(17시)
전남대	9월10~15일(18시)		
조선대	9월9~15일(18시)		
광주교육대	9월9~15일(17시)	9월15일(18시)	
전북대	9월10~15일(18시)	9월17일(18시)	
광주·호남·동신대	9월9~15일(18시)		

스펙이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논술·면접 등에 대한 준비 정도, 전형별로 설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등급 기준의 달성 가능성까지 포함된다.

당장, 9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와 학생부 성적 등을 통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위

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시로 진학할 경우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도 미리 가늠해 보아야 한다.

특히 6회 지원 중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비교해 2(안정)·3(소신)·1(상향) 지원 등으로 분산 지원하는게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전형별로 수험생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별로 다른 전형 일정을 일일이 따져보고 학생부종합 전형이라도 일괄인지, 단계형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한편, 논술시험 등이 학교별로 겹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 전형 날짜도 챙겨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3개의 대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진학부장 선생님과 상담, 수험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해질 18:49, 달돋이 02:21, 달질 16:19

교통안전 유의

오전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6/29	보성	맑음	13/28
목포	맑음	17/28	순천	맑음	14/29
여수	맑음	19/26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3/29	진도	맑음	14/28
완도	맑음	19/27	전주	맑음	14/29
구례	맑음	13/29	군산	맑음	15/28
강진	맑음	13/28	남원	맑음	11/28
해남	맑음	13/29	축산도	맑음	19/24
장성	맑음	13/2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먼바다(동)	북~북동	2.0~4.0	북~북동	2.0~4.0
	먼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2.0~4.0

물때

목포	물때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1:22	04:54	00:00	16:56
	06:48	00:53	19:16	12:41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	☀	☀	☀	☀	☀	☀
17/28	18/28	19/25	19/25	16/27	17/27	18/27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50
- 빨래 90

광주·전남 조합장 무더기 재선거 예고

불법선거 적발 237명...공소시효 11일 종료

지난 3월11일 지른 전국 첫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 적발된 사람이 광주·전남에서 237명에 달했다. 광주에서 16명, 전남에서 221명이다.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11일 종료된다. 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전남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237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광주는 16명을 단속해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6명

의 내사는 종결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향음 제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명, 후보자비방이 1명이었다. 조합이 많은 전남에서는 22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구속이 5명, 불구속 111명, 내사 종결 105명이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금품 및 향음 제공이 가장 많은 136명이나 됐고, 이어 사전선거운동 26명, 허위사실공포 및 후보자 비방이 25명, 기타 34명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여수 양식장 적조에 초토화 91만 마리 폐사...전남도, 황토 살포 피해줄이기 총력

〈속보〉적조 경보가 내려진 완도지역 육상양식장에서 어류 폐사 신고(광주일보 9월8일 1면)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에서도 폐사 피해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8일 전남도와 완도군에 따르면 적조 경보가 발효된 완도군 신지면 육상양식장 2곳(7만2000마리)에 이어 약산면 육상양식장 8곳에서 추가로 낚치 40여 만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에서만 7일과 8일 사이 육상양식장에서 47여 만 마리가 폐사했다.

완도군은 폐사원인을 밝히기 위해 남서해수산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약산면 일대 육상양식장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비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양식장에 적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폐사원인이 적조인지 여부는 다음주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도내에는 여수 돌산~완도 보길에 적조 경보가 발효 중이다.

또 여수시 거문도 해역 양식장에서는 적조주의보가 발령(8월19일)된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모두 43만3000마리의 어류가 폐



적조 경보가 내려진 완도지역에서 양식장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완도군 생일면 울출리의 한 전복 양식장 주변으로 적조피가 넓게 퍼져 있다. /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어종은 쥐치 15만 마리, 돌돔 5만 마리, 능성어 8000 마리, 전복 22만 마리 등이다. 여수 전 해역에는 이달 3일부터 적조경보로 격상됐다. 특히 여수 거문도 적조 피해의 경우 지

난달 26일부터 폐사가 진행됐는데도, 광주일보의 적조 피해 보도 이후인 이달 8일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적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인력 350명과 선박 320

대를 동원해 적조 발생 해역에 수류방제(선박이 물살을 일으켜 적조 생물을 분쇄하는 방식)와 황토 살포를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전국 10곳 시·도 교육감

정국회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등 전국 10곳 교육감이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심을 거스르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자율성·다원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광주·전남 교육감을 비롯, 부산·경

남·전북·제주 등 남부권 교육감 6명과 서울·강원·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4명은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국정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회계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35~64세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호방 810평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